

# 스님 1000명 '법화경' 독경법회 연다

## 수덕사 대웅전 건립 700주년 10월 18일 행사 풍성

예산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응산)가 국보 제49호인 수덕사 대웅전 건립 700주년 기념사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로 창건 1409년이 된 수덕사는 수덕사의 역사성과 우수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동안 열지 않았던 개산대재를 재개하는 등 수덕사의 역사와 사력에 걸맞는 각종 문화포교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수덕사는 10월 18일 창건 1409주년 기념 및 대웅전 건립 700주년 기념행사로 국가와 민족의 안녕, 나라 가정의 평화, 조상과 영가 천도를 위한 만등불사 및 1000승려 동참 <법화경> 독경법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수덕사는 700주년 기념행

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봉행 위원장에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추진위원장에 오영교 동국대학교 총장 ▲고문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승우 예산군수, 이종건 홍성군수를 각각 위촉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수덕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700주년 기념행사에는 보기 드문 장관도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덕사는 백제의 해원 법사가 <법화경>을 설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70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1000여 스님 및 대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독경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최근 이명박정부의 종

교편향, 미국산 쇠고기 파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유가 급등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독경법회를 통해 평안해지기를 기원하는 뜻도 담겨있다. 특히 1000여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독경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수덕사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이 독경법회에 참여하고 싶은 재가불자는 수덕사로 신청하면 된다.

수덕사는 이밖에 대웅전 기간 중에 외국인 스님들과 외국인 불교신도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선에 대해 참가하고 실수(實修)하는 세계일화대회와 동·서양의 법거량(선단법), 세계다도대회, 꽃꽂이 시연, 만등불사, 소림사 무술단 시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수덕사에 방문한 불자들이 직접 제



국보 제49호 수덕사 대웅전.

협할 수 있는 전통건축 미니여행 조립, 전통 한지 등 제작, 전통 천연 염색체험, 명상의 길 걷기, 산사체험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응산 스님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인

정받고 있는 수덕사 대웅전이 700년이 되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7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를 준비했으나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041)337-6565

손효선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 대전 백제불교회관

## 신행단체 합동법회로 결속력 높여

그동안 잘 지냈다는 안부, 한 동안 못 와서 죄송하다는 겸연쩍은 인사, 다음 달에는 꼭 오겠다는 불참 소식 등등.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이면 대전지역 신행단체 합동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의 목소리가 대전 백제불교회관(주지 장곡)을 꽂 채운다.

백제불교회관이 합동 법회를 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장곡 스님은 "각자 자신들이 다니는 절이 있을 것이고 이곳은 그냥 '장터'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곳은 그저

회를 개방하고 있다"며 "합동법회의 본래 취지는 불자들의 우의와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자라면 누구나 백제불교회관 합동 법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백제불교회관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사이버 전법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백제불교회관(cafe.daum.net/gaekje)'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카페 또한 장곡 스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장곡 스님은 "시대의 흐름



## 인터넷 활용 시대 흐름 맞는 포교활동

불자들을 위한 전법 포교도량으로써 불자들끼리 한 달에 한번 얼굴을 보고, 우의를 다지는 곳이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이면 법회뿐 아니라 도반들을 만나기 위해 백제불교회관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 이곳에 오는 불자들은 대전 신행단체 회원들이 주를 이룬다. 대전시청불자회를 비롯한 충남도청불자회, 충남지방경찰청불자회, 대전불교언론인회, 운불련 대전지역회, 대전교사불자회 등은 불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활동분야나 장소가 달라 교류가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합동법회를 통해 교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불자들의 결속력이 강해졌다고

이에 대해 장곡 스님은 "현재 합동법회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행단체 회원들이 주로 법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일반 불자들에게도 법

회에 맞게 우리 불교에서도 미디어를 활용한 포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컴퓨터를 하나도 몰랐지만 조금 더 많은 대중에게 불교를 알리고자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웠고, 카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의 말씀처럼 백제불교회관 카페는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색다른 포교당이다. 카페 내에는 사이버 연등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곳은 물론 매일 자신을 위해 축원문을 올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뒀다. 또한 매일 주지 스님이 직접 법문을 올리는가 하면, 불자들을 위한 사경, 사찰 예절, 불교 교리, 불교 상식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장곡 스님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의 백제불교회관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활동해 전법 포교도량으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042)471-8214

손효선 기자

## 군중교구,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봉행



군중특별교구(교구장 일명)는 8월 23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법당에서 1700여 장병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통도사 유원정 덕문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동학사 비구니스님 10여명과 31사단, 32사단, 35사단, 부사관학교, 항공학교 군승법사들이 연비 동수계지원에 나서며, 천태종이 법회를 후원했다. 김성우 기자

## 흥주사, 8월 29일 개원식

###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충남 태안군청이 있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흥주사(현우 스님)지회가 운영하는 태안 첫 공립 어린이집인 '다사랑 어린이집'이 8월 29일 개원식을 봉행했다. 개원식에는 응산 스님(수덕사 주지), 현우 스님, 전태구 태안군수, 이용희 태안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 문화와 자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이로 키우겠다"며 "9월 1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다례, 요가, 명상 등을 접목한 문화체험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 태안읍에 위치한 '다사랑 어린이집'은 지상 2층의 연면적 531.4㎡ 규모로 약 50여명의 아이들이 지내게 된다. 손효선 기자

## '금속활자 특별전' 상설 전시

### 9월 21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과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금속활자 특별전'을 8월 25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상설전시관에서 개관식을 봉행했다. 이번 특별전은 이날부터 9월 21일까지 전시된다.

이날 대전 교육과학연구원 최진동 원장은 "이번 전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된 금속활자를 재조명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 말씀이 담긴 <지지심체요절>과 <반야심경>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제작과정과 조선시대 금속활자 제작 과정, 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활자판,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인 월인천강지곡 활자판 등이 전시된다.

또한 지지심체요절(금속 활자판)과 <반야심경(목판)>을 비롯해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 '담배 피는 호랑이' 등을 인쇄해 볼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돼 있다. (042)601-7894

손효선 기자

## 천태종 상월 조사 배구대회

### 24일 단양 공설운동장서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8월 24일 충북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제35회 상월 원각 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천태종 중정 도영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김동성 단양군수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참한 이번 대회에서는 50여 참가자 가운데 분당 대광사가 참원 원흥사를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개막사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 청년 기상을 키우기 위해 배구대회를 개최한 것은 서로 서로가 팀을 위해 한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웃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배구를 비롯해 축구,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장애물 릴레이 경기도 펼쳐졌다.

김성우 기자

충청지사 기사제보 | (043)732-5560



# 부산 대구

# 카이로프락틱 교육연수원 개원

##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 카이로프락터 양성

-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세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 대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마자, 스포츠 맞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 기간**
  - 2급과정 (1개월)
  -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54시간 집약완성
- 장소**
  - 부산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태성빌딩 6층
  -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 입학일시**
  - 2008년 10월 1일 ~ 10월 5일

## 전생·빙의·자기치면·치료치면

### 각종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형교육 치면으로 전생, 현생, 미래생 탐색, 나를 찾는다

- 개강일**
  - 2008년 10월 1~ 10.5
- 교육기간**
  - 주2회(총8회) 1개월 고급속성과정
- 교육대상**
  -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 교육내용**
  - 자기치면 / 타인치면 / 기억력, 집중력 증강 / 육임 우물증 해소 / 대인공포 / 성격개선 / 스트레스 / 금연 빙의 / 전생 / 금주
- 교양대학**
  - 사주명리 / 침술 / 성명학 / 풍수지리 / 자미두수 육임 / 명리로 영가 찾는 법 / 구궁법
- 특기사항**
  -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경비
  -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 3.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 평생교육



원장 우혜안 스님



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교육연수원

부산연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88-4 태성빌딩 6층(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본원 교학과 Tel : 051-746-4026

대구연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3동 1553-6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본원 교학과 Tel : 053-632-0078